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반도체 ‘증가’, 섬유 ‘감소’,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유지 (-0.4%)	유지 (0.8%)	유지 (-0.1%)	감소 (-2.0%)	유지 (-0.6%)	증가 (2.8%)	유지 (0.5%)	유지 (-1.2%)	유지 (-0.9%)	유지 (-0.2%)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일반기계 산업의 2026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회복 효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6년 내수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고선가 선박의 인도 본격화, 생산 공정 안정화 진행으로 전반적인 수출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6.10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치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 2026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8%(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AI 중심의 투자 지속과 내수 개선으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 부품 수요 증가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AI·IT 신제품 출시,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상반기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의 내수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투자 확대와 AI·IT 제품 수요에 따른 내수 개선으로 생산 확대가 기대되지만, 해외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1%(-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 생산의 지속적 확대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섬유류 수출은 미국발 경기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고부가 소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회복과 고부가제품 투자 확대,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섬유류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범용 원사 전방산업의 연쇄적 부진과 해외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5> 철강 : 수출 여건 악화에도 생산이 소폭 증가하여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수출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 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생산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철강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6%(-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6> 반도체 : 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반도체 시장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수출은 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 중심의 설비투자 증대로 2026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자동차 : 내수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질구매력 제약이 존재하나 신차 출시 효과와 노후차 교체수요,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견고한 친환경차 수요와 중동·중남미 등 시장 다변화의 영향으로 수출은 증가세가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5%(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고부가가치 수요 견조로 OLED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트 제품의 생산량 축소 위험이 존재하나 AI 대중화, 프리미엄 IT OLED 패널 출하량 증가로 OLED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OLED 수출은 고부가가치 수요 견조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CD 수출은 국내 기업의 OLED 중심 사업 전환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9> 금속가공 : 2026년 상반기 수출과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생산은 보수적인 운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상반기 수출은 부진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실물 생산 회복 지연으로 보수적인 운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상반기 금속가공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9%(-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석유·화학 : 석유·화학 업황 불황에도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고착화로 석유·화학 업황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성 중심의 가동을 유지 및 생산 물량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부정적 요인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석유·화학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붙임 :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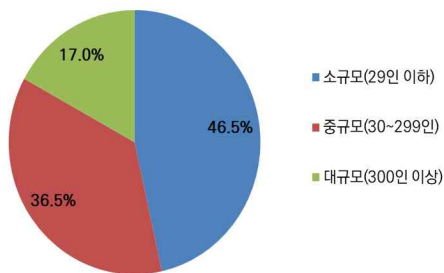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책임자	팀 장	권재혁	(043-870-8275)
		담당자	부연구위원	김새봄	(043-870-8231)
담당 부서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담당자	실 장	정용욱	(02-6009-3230)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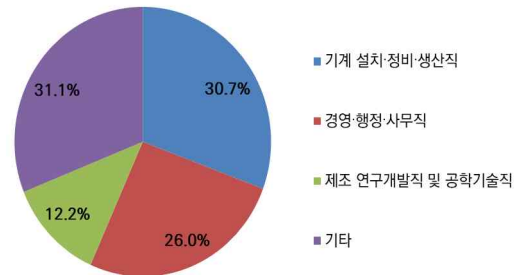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하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49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3.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46.5%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6.5%,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17.0% 근무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4.1%)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9%,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9.7%), 경남 창원시(7.3%), 경기 시흥시(3.9%), 경남 김해시(3.5%), 충남 천안시(3.3%), 부산 강서구(3.3%), 경기 평택시(2.9%), 경기 안산시(2.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0.7%), 경영·행정·사무직(26.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2%)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495천 명) 대비 0.4%,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9.4천 명, 채용인원 14.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6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3.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p 높고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15.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7.1%)',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8.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8%)'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9.3%), 경영·행정·사무직(18.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5.0%), 경남(17.0%), 충남(10.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경기전망

- (수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일반기계 수출 부진 예상
 - *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설비투자 위축과 대미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225억 9,500만 달러 수준 예상
- (내수) 2026년 상반기 설비투자 회복 효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간 내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 전망
 - 2026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1.7%, 하반기 1.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건설투자 회복이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면서 기계류 내수 회복은 완만한 수준에 머물 전망
- (생산) 2026년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일반기계 생산은 감소세 지속 예상되며, 하반기에도 회복 동력이 제한돼 연간 생산은 전년 대비 0.6% 감소 전망
 -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연중 생산 조정 국면 지속 전망

【2026년 일반기계산업 전망】

구분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생산 (십억 원, %)	152,719 (-1.5)	75,039 (-0.9)	74,469 (-3.3)	149,508 (-2.1)	74,289 (-1.0)	74,320 (-0.2)	148,609 (-0.6)
내수 (십억 원, %)	125,284 (-0.2)	64,608 (4.6)	64,865 (1.3)	128,933 (2.9)	65,663 (2.5)	66,284 (2.2)	131,947 (2.3)
수출 (백만 달러, %)	51,172 (-4.2)	23,617 (-9.4)	23,301 (-7.2)	46,918 (-8.3)	22,595 (-4.3)	22,602 (-3.0)	45,19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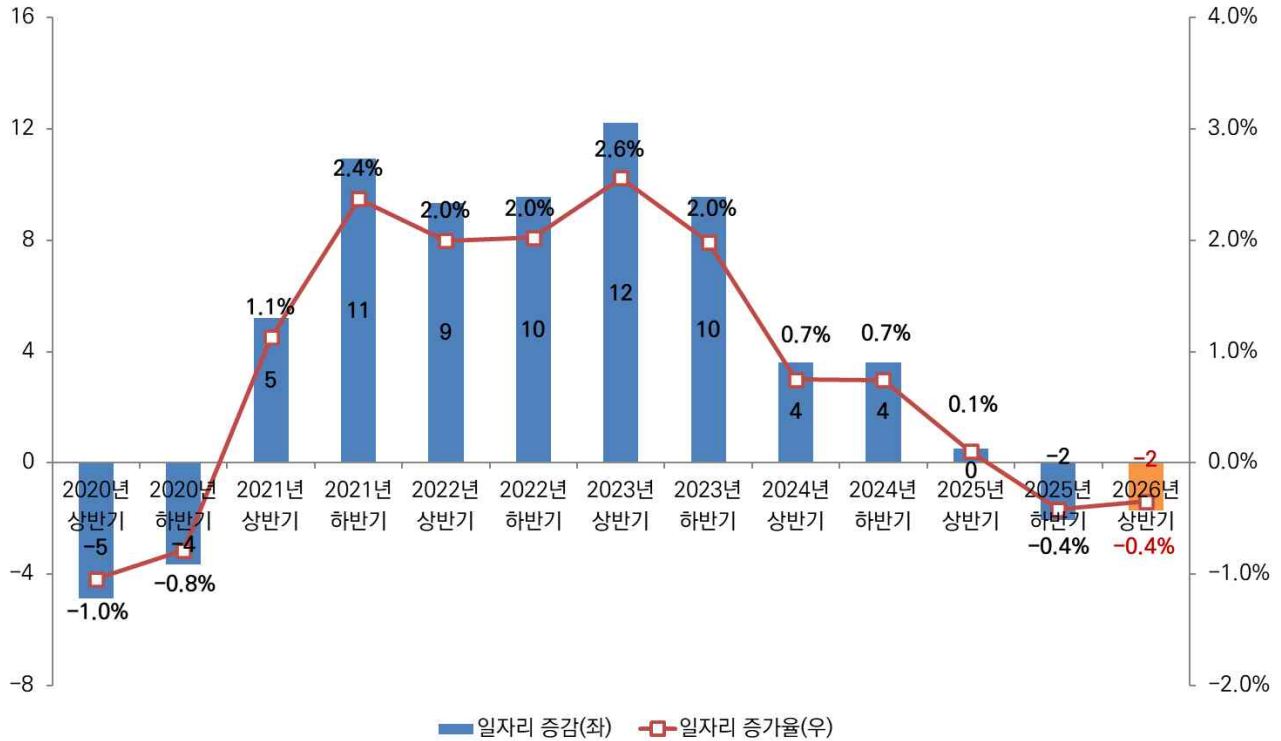
주)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2026년 경제 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0	2.0	2.6	2.0	0.7	0.7	0.1	-0.4	-0.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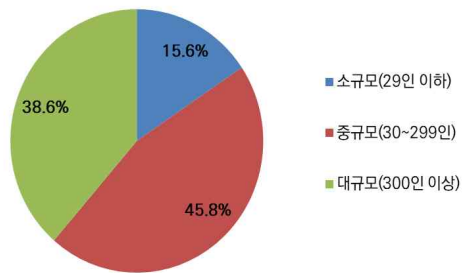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4%(-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대구, 경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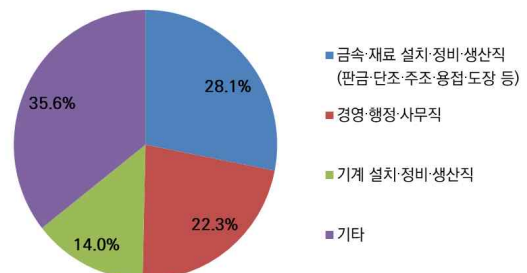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을 제조하는 국가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하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45.8%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38.6%,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5.6%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6.0%), 울산 동구(28.9%)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3.8%), 경남 창원시(3.2%), 부산 영도구(2.8%)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28.1%), 경영·행정·사무직(22.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0%)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116천 명) 대비 0.9%, 1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3천 명, 채용인원 2.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5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14.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6.0%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3.3%)',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2%)',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29.5%), 경영·행정·사무직(21.4%), 제조 단순직(15.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40.5%), 울산(34.4%), 전남(17.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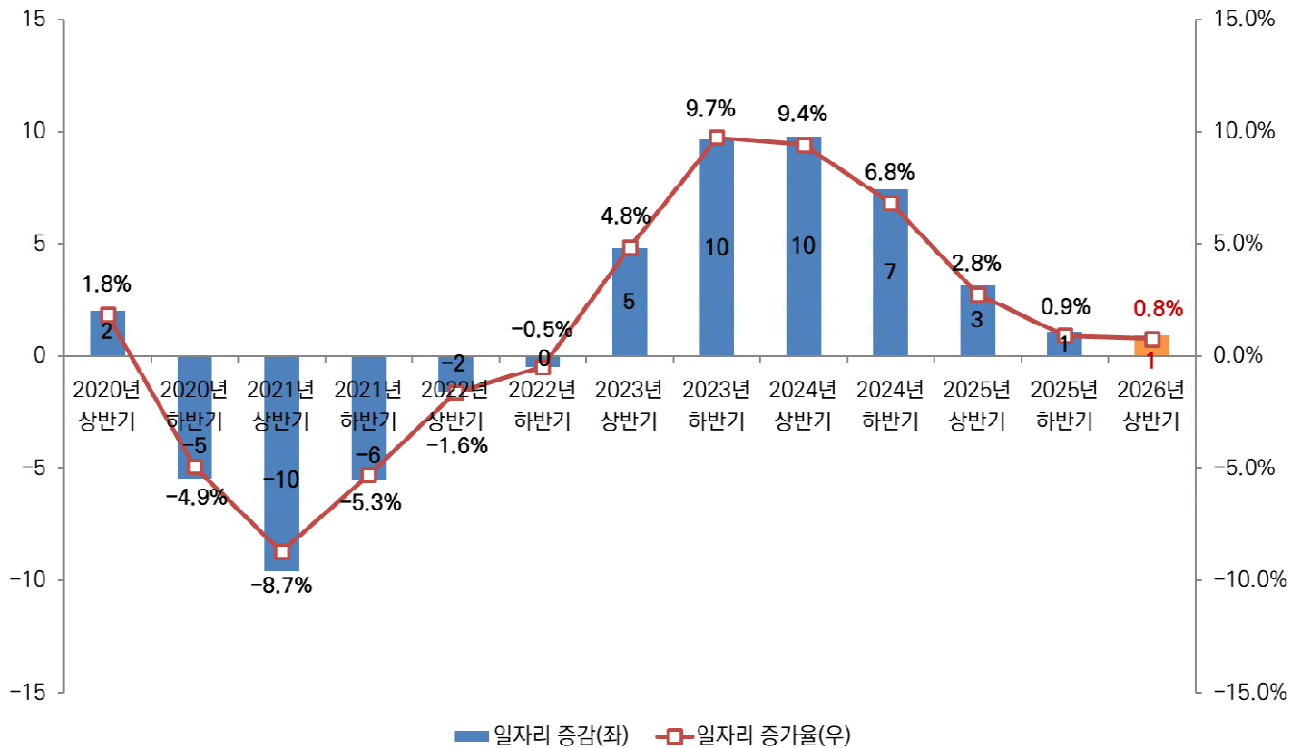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2년~2023년 다량 수주한 LNG 운반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의 인도 본격화, 생산 공정 안정화가 진행되며 전반적인 수출 흐름 개선 전망
 - * 신조선가 지수(지수, '88.1월 선가 100기준) : ('22) 161.8→('23) 178.4→('24) 189.2→('25) 185.6
- (수출) 2026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약 339.1억 달러로 전망됨
 -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선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LNG 운반선이 공백을 메우며 전체 수출액의 47.7%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수출환경) 항로 우회로 인한 선박 수요 증가와 고환율은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인력부족·경쟁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원자재가 상승 등은 부정적 요인
- (수주잔량)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량 증가로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조선소는 36.10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 치 이상에 해당되는 일감 확보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1.6	-0.5	4.8	9.7	9.4	6.8	2.8	0.9%	0.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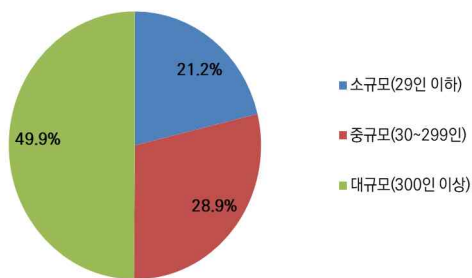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상반기 대비 0.8%(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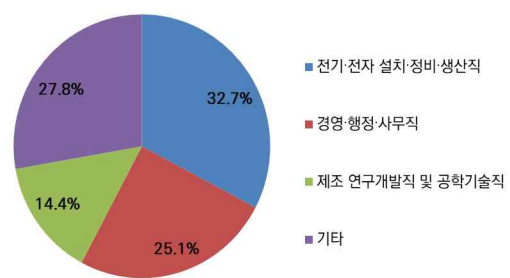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부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5년 하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5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4.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49.9%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8.9%,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21.2%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5%), 전기장비 제조업(3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20.3%), 서울 영등포구(9.6%), 경기 용인시(6.2%), 경기 화성시(4.0%), 경기 안산시(3.5%), 경남 창원시(3.4%)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2.7%), 경영·행정·사무직(25.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4.4%)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757천 명) 대비 0.5%, 4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3.3천 명, 채용인원 19.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8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16.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7.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4.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4.2%)',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8%)'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45.1%), 경영·행정·사무직(14.7%),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3.6%), 경북(14.1%), 충남(5.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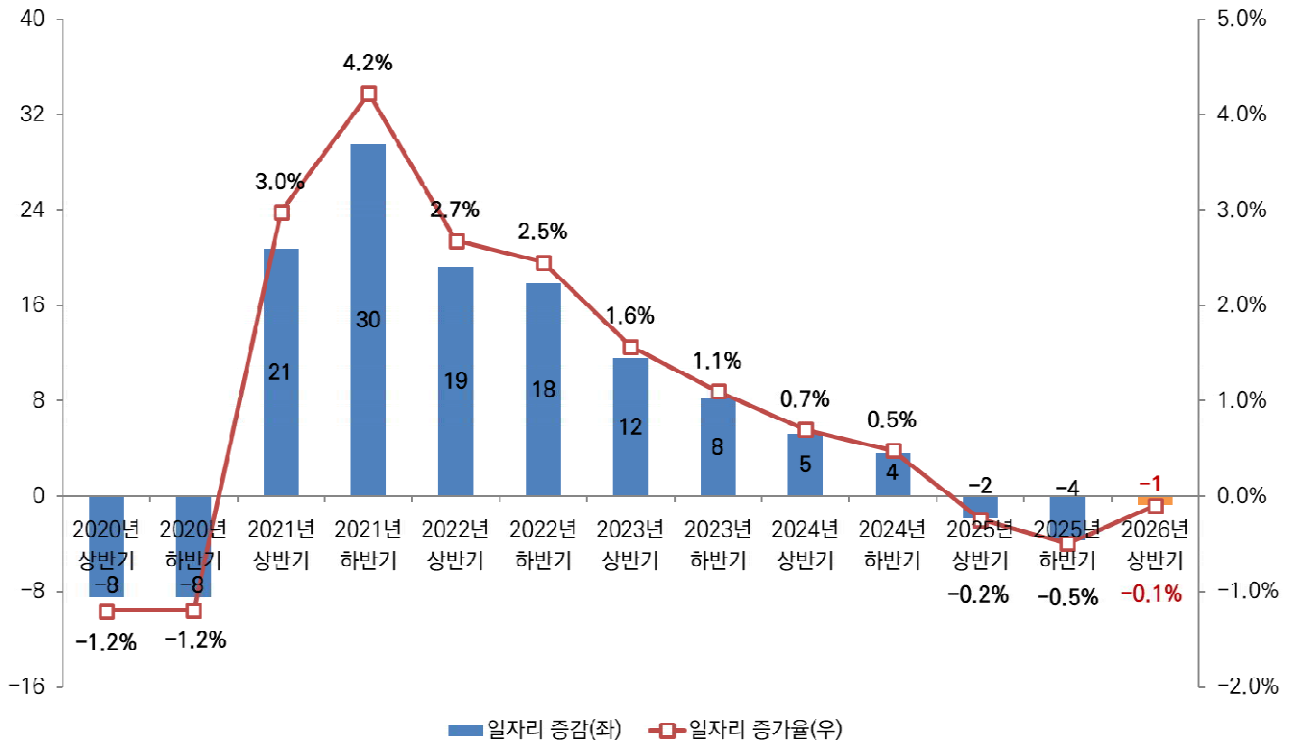
경기전망

- (종합) 2026년은 AI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며 정보통신기기 등 신산업군이 글로벌 산업 수요를 견인할 전망(산업연구원, 2025년 12월)
- (수출)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부가 부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 지속
 - (정보통신기기) 생성형 AI로 인한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와 HDD에서 SSD로의 전환에 따른 대용량·고사양 SSD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3.5% 성장 전망
 - (가전) 글로벌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0.4% 증가 전망
- (내수) AI 중심의 투자와 수요 확대에 힘입어 내수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AI 스마트폰과 폴더블폰 등 신제품 출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AI PC 교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1.9% 증가 전망
 - (가전) 민간소비 회복과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가전 구독 서비스 확산, 장기간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2.3% 증가 예상
- (생산)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생산 확대 흐름 전망
 - (정보통신기기) 스마트폰과 SSD 수출 확대로 해외 생산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비 2.5% 증가 전망
 - (가전)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확대와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전년동기비 0.7% 증가 예상
- (수입)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수입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 국내외 AI 스마트폰과 AI PC 신제품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비 2.9% 증가 예상
 - (가전) 내수 회복과 중국 브랜드 국내 진입 확대, 해외 생산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3.0% 증가하며 증가세 전환 전망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7	2.5	1.6	1.1	0.7	0.5	-0.2	-0.5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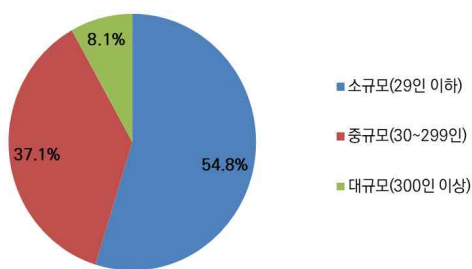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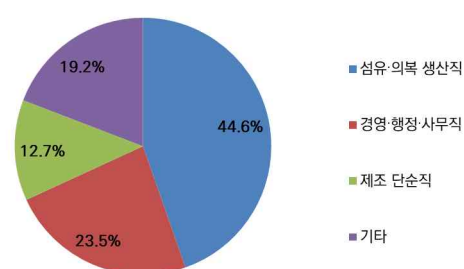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54.8%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7.1%,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 8.1%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8%)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6%), 경기 포천시(3.5%), 경기 양주시(3.4%), 경북 구미시(3.4%), 서울 강남구(3.1%), 대구 달서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4.6%), 경영·행정·사무직(23.5%), 제조 단순직(12.7%)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149천 명) 대비 3.5%, 5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중규모(30~299인) 사업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3천 명, 채용인원 7.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8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9.4%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3%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1.0%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9.3%)',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20.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7.1%), 제조 단순직(25.8%), 경영·행정·사무직(12.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34.6%), 경기(26.7%), 대구(11.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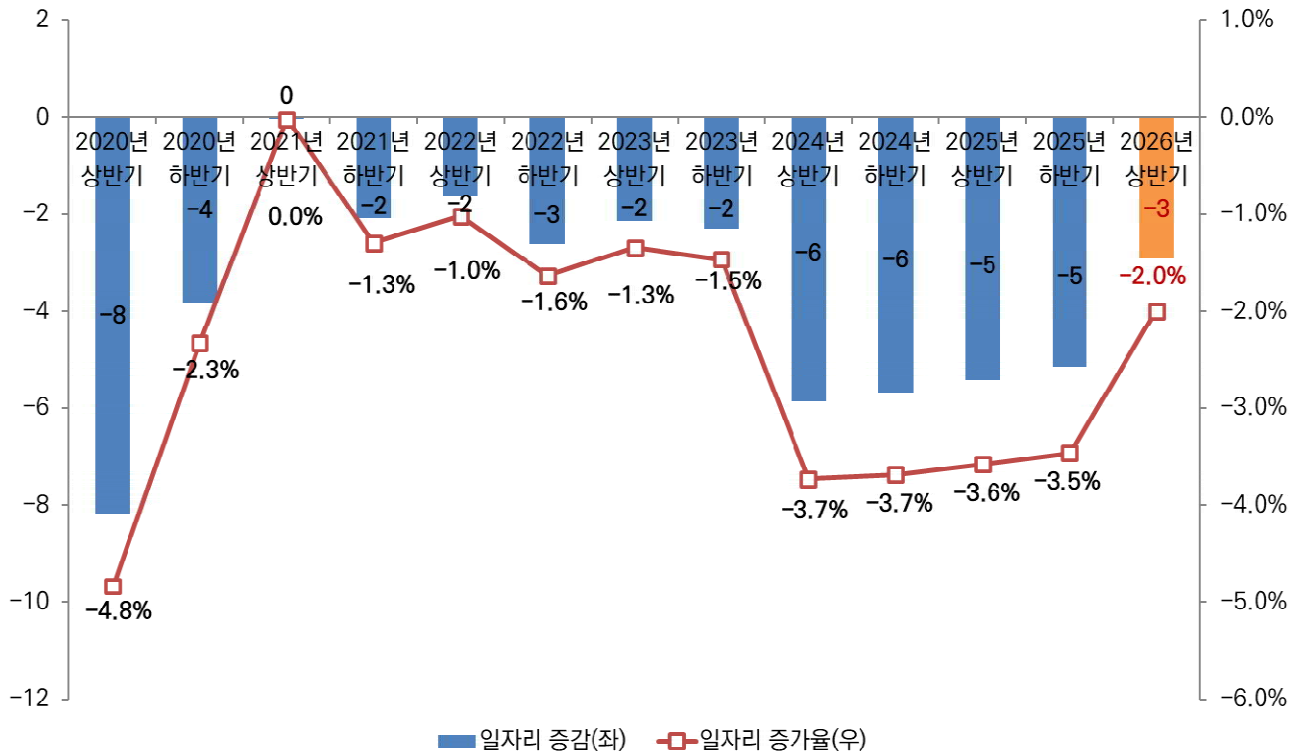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미국발 경기둔화와 중국과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고부가 소재 확대로 소폭 반등 예상
 - (증가요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경기부양, 중국·대만의 대미수출 고관세에 따른 반사이익, 한류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확대, 고환율 유지로 가격 경쟁력 확보
 - (감소요인) 미국 상호관세 효과 본격화, 중국 이커머스 급성장 및 세계시장 잠식 확대,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압력
 - * 2026년 섬유류 수출 전망 : 99.6억 달러(전년 대비 +2.0%)
- (수입) 소비여건 개선과 중저가제품 수입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세 전환 예상
 - (증가요인) 금리변동,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증가,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증가,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 및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 (감소요인) 가계부채 체증 및 부동산 규제강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 * 2026년 섬유류 수입 전망 : 194.4억 달러(전년 대비 +1.4%)
- (생산) 수출 확대와 내수 회복, 고기능성·첨단 소재 중심의 설비 증설 효과로 증가세 전환 전망
 - (증가요인)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증가 및 수출회복, 디지털 전환/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제품 투자 확대, 냉감기능성·스판텍스 등 고기능성 소재 수요 증가
 - (감소요인) 범용 원사 전방산업(직편물, 염색가공)의 연쇄적 부진, 중국산 과잉물량 등 해외 중저가 제품 경쟁 심화,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수입 증가
 - * 2026년 섬유류 생산 전망 : 52.2조 원(전년 대비 +0.8%)
- (내수) 소비심리 회복과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를 견인하나, 가계부채 부담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증가요인) 금리인하 및 물가하락,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개선, 내수진작책 및 고부가 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중국 과잉물량 및 C-커머스 국내 진출 가속화
 - (감소요인)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경기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온라인 쇼핑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소매점 경쟁 심화 등
 - * 2026년 섬유류 내수 전망 : 65.6조 원(전년 대비 +0.8%)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1.0	-1.6	-1.3	-1.5	-3.7	-3.7	-3.6	-3.5	-2.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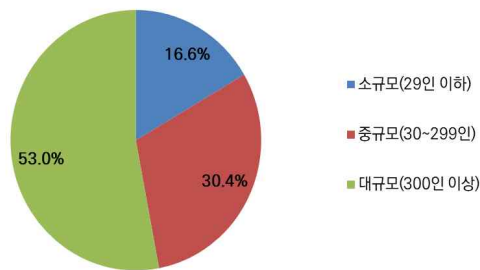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2025년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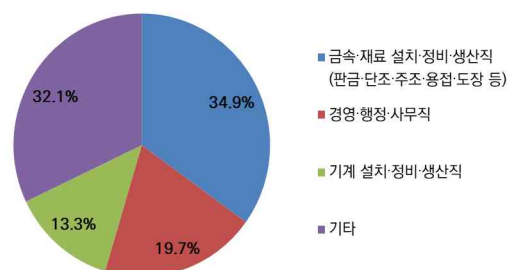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절반 이상인 53.0%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0.4%,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16.6%가 종사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24.0%), 충남 당진시(11.6%), 경남 창원시(8.1%), 전남 광양시(4.4%), 울산 울주군(4.2%), 인천 동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4.9%), 경영·행정·사무직(19.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3%)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118천 명) 대비 0.9%, 1천 명 감소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체(29인 이하)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6천 명, 채용인원 4.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9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16.3%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7.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42.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4%)',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4.0%), 제조 단순직(27.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1.5%), 충남(17.6%), 경남(14.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경기전망

- (생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6년은 전년비 소폭 증가 전망
- (내수)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주력산업의 수요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그 간 침체되었던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 전망
 - * 자동차, 보호무역 강화 등 수출 위축 영향으로 전년 수준 전망. 조선의 건조 물량은 감소하나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 선별 수주 물량 건조 본격화 예상
 - ** 건설업은 '26년 매수·투자심리 회복 추세가 기저효과와 맞물리면서 소폭 반등 전망('26년 건설투자 전망 : 전년비 +2.2%, KDI '25.11)
- (수출)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전년비 감소세 전환 전망
- (수입) 최근 반덤핑 조사 확대 등 국내 시장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수입은 '2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 전망

< 철강재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 백만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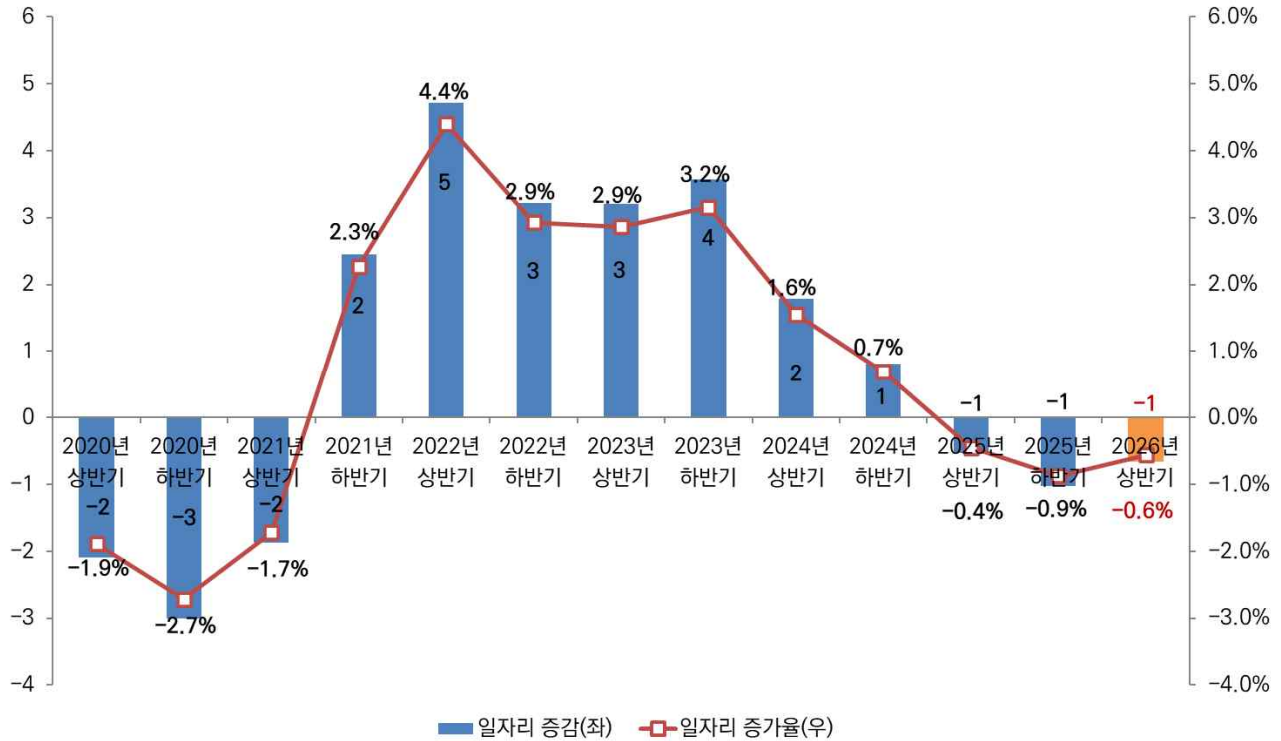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 ^e	2026 ^e
내 수 (전년비)	56.0 (13.9)	51.3 (△8.5)	52.4 (2.2)	47.8 (△8.9)	43.4 (△9.1)	43.9 (1.2)
수 출 (전년비)	27.1 (△6.1)	25.7 (△5.3)	27.3 (6.5)	28.4 (3.7)	28.8 (1.5)	28.2 (△2.1)
수 입 (전년비)	14.5 (17.4)	14.1 (△3.0)	15.5 (10.2)	14.7 (△5.5)	13.4 (△8.7)	12.8 (△4.4)
수급상 수입 (전년비)	9.5 (23.5)	9.1 (△4.5)	9.9 (9.3)	9.7 (△2.5)	8.7 (△10.0)	8.2 (△5.5)
생산 (전년비)	73.7 (4.7)	67.9 (△7.8)	69.9 (2.9)	66.5 (△4.9)	63.5 (△4.5)	63.9 (0.7)

* 자료) 2026년 국내 철강재 수급전망(한국철강협회, '25.11월 기준)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4.4	2.9	2.9	3.2	1.6	0.7	-0.4	-0.9	-0.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수준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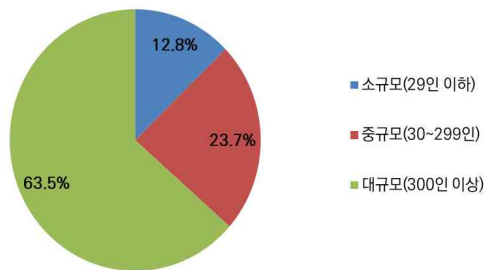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북,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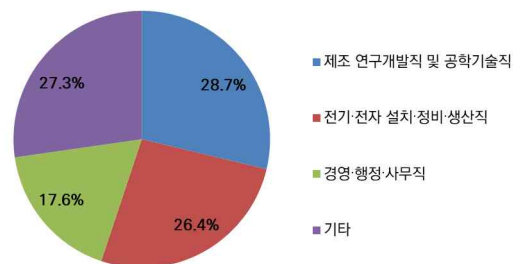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63.5%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23.7%,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2.8% 근무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8.2%)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8%)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5%), 경기 화성시(10.2%), 충북 청주시(8.0%), 충남 천안시(6.8%), 경기 평택시(6.1%), 경북 구미시(3.9%), 경기 부천시(3.6%), 충남 아산시(3.5%)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8.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6.4%), 경영·행정·사무직(17.6%)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149천 명)에 비해 3.2%, 5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중규모(30~299인)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8천 명, 채용인원 5.8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0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15.1%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6.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0.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4.7%)'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4%)'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3.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6.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1%)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2.8%), 충남(20.1%), 충북(10.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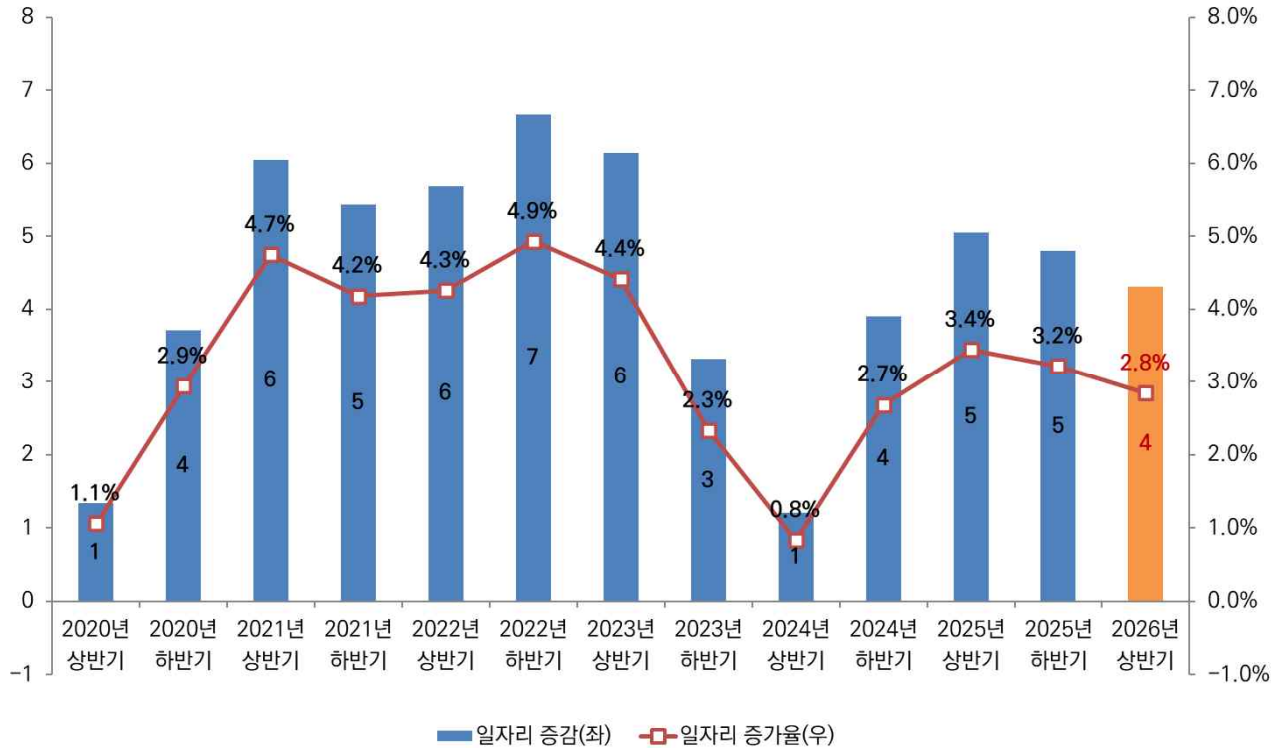
경기전망

- (글로벌 시장 전망) '26년은 AI 서버,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25년 약 7,722억 달러 대비 약 26% 증가한 9,755억 달러(출처: WSTS)로 성장 전망
 - (메모리) AI 및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서버용 D램과 SSD수요 강세로 '26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87%의 높은 성장 예상
 - *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 ('22)1,459→('23)967→('24)1,699→('25e)2,264→('26e)4,229
 - * D램 시장전망(OMDIA) : '25e 1,499억 달러 →'26e 2,783억 달러 (약 85.7% 증가 예상)
 - * NAND 시장전망(OMDIA) : '25e 717억 달러 → '26e 1,393억 달러(약 94.3% 증가 예상)
 - (시스템반도체) AI 가속기(GPU·NPU)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와 차량용, 산업·에너지 분야 SoC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 성장 전망
 - * 시스템반도체 시장전망(억\$, OMDIA) : ('22)2,875→('23)2,931→('24)3,438→('25e)4,135→('26e)4,564
- (수출 전망) '25년에는 HBM, DDR5 등 첨단 메모리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1,734억 달러를 달성, '26년에도 견조한 AI 메모리(HBM 등) 및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3% 증가한 2,0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메모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 일반 서버용 D램 수요 발생 등으로 '26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24.6% 증가한 1,482억 달러 기록 전망('25년 1,189억달러)
 - * 메모리반도체 연간 수출액 전망(억 달러) : ('22)738→('23)514→('24)883→('25)1,189→('26e)1,482
 - (시스템, 광개별) 글로벌 정세불안과 IT Set 수요 부진 영향 등으로 '26년 시스템반도체 및 광개별소자 수출은 소폭 감소(△5.0%)할 것으로 전망
 - * 시스템/광개별 연간 수출액 전망(억 달러) : ('22)555→('23)472→('24)536→('25)545→('26e)518
- (투자 전망) '26년에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첨단공정(5나노 이하 등)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로, '25년 대비 약 12% 증가한 2,223억 달러 투자 예상
 -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와 첨단공정 중심의 설비 확충 기조 유지가 주요 투자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억 달러, Gartner) : ('23)1,723→('24)1,821→('25e)1,980→('26e)2,223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4.3	4.9	4.4	2.3	0.8	2.7	3.4	3.2	2.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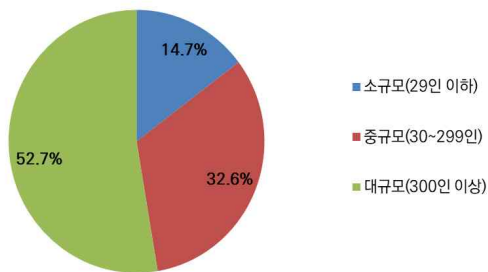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 고용은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8%(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북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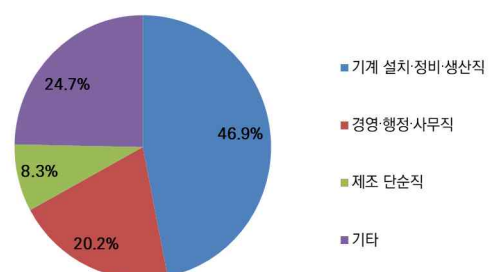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40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52.7%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2.6%,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4.7%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1.0%), 울산 북구(9.5%), 경기 화성시(6.3%), 충남 아산시(5.8%), 경남 창원시(4.6%), 경북 경주시(3.6%), 경기 평택시(3.4%), 서울 강남구(3.2%)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6.9%), 경영·행정·사무직(20.2%), 제조 단순직(8.3%)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4년 하반기(403천 명) 대비 0.6%, 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2.3천 명, 채용인원 10.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7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13.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5.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3.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4.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51.0%), 경영·행정·사무직(15.5%), 제조 단순직(13.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19.3%), 경북(16.8%), 울산(13.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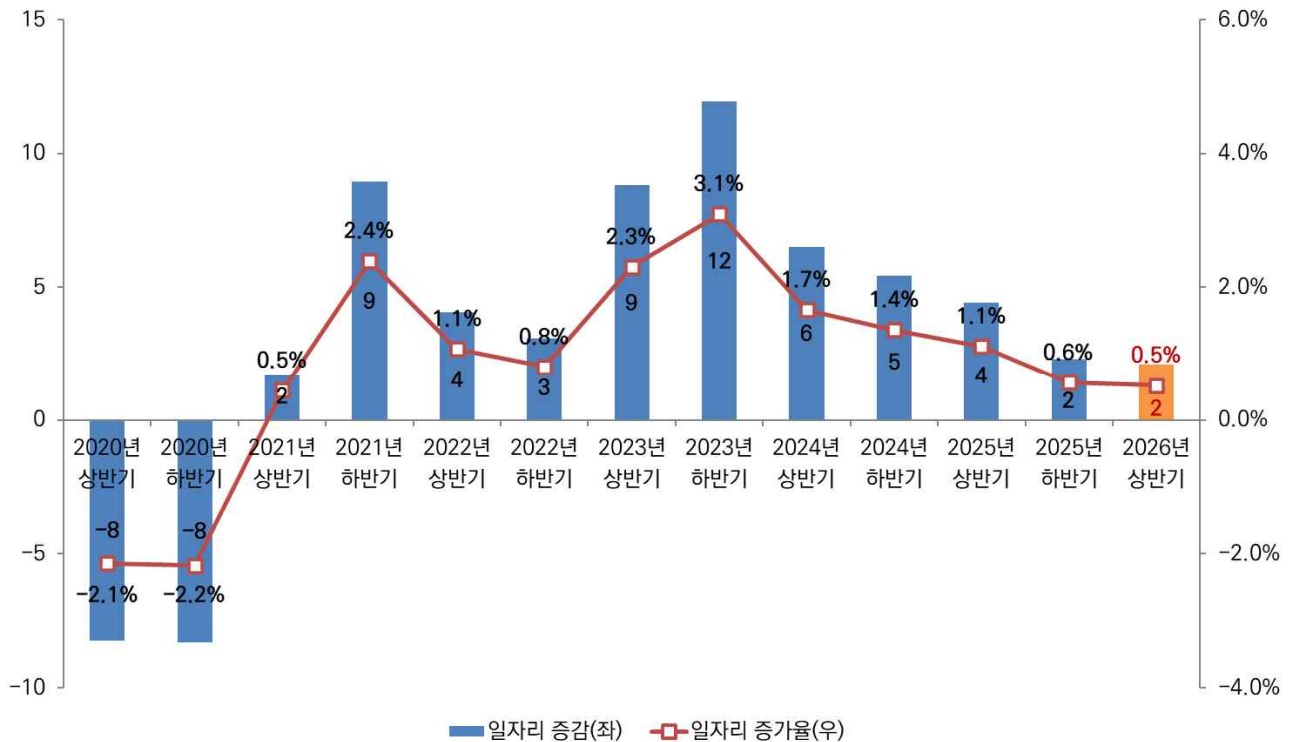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6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 경기는 전기차 보조금 및 신차 출시 효과, 노후차 교체 수요 등으로 내수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대미 관세 불확실성 완화 및 글로벌 친환경차(HEV 중심) 수요로 인해 수출과 생산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실질구매력 제약이 남아있지만, 신차 효과·노후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친환경차 수요 확대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 2026년 연간 내수는 169만 대 수준 전망(개별소비세 감면 2026년 연장 전제, KAMA)
 - **(수출)** 대미 관세 등 통상 리스크의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차(HEV 중심) 수요가 견고하고, 중동·중남미 등 시장 다변화가 이어지며 증가세가 예상되나, 보호무역 강화 및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증가 폭 제약
 - * 2026년 연간 수출 물량은 275만 대 규모 전망(KAMA)
 - **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북미·중국 등 주요 시장의 성장 둔화로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흐름이 예상되나, HEV·PHEV 중심의 친환경차 수요와 멕시코·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성장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될 전망(HMG경영연구원)
 - **(생산)** 친환경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와 신차 효과, 중견 업체들의 수출 우선 전략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소폭의 증가세 전망
 - * 2026년 연간 생산은 413만 대 전망(KAMA)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1.1	0.8	2.3	3.1	1.7	1.4	1.1	0.6	0.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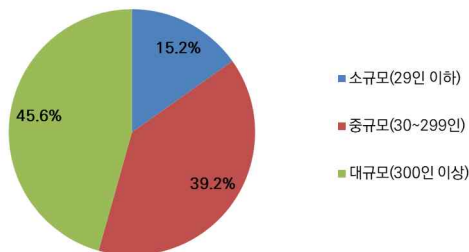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2025년 상반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5%(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는 서울, 경북, 경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 제조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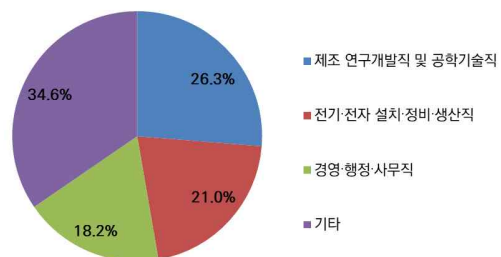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2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45.6%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 39.2%,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 15.2% 근무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1.0%), 경영·행정·사무직(18.2%)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115천 명) 대비 2.7%, 3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4천 명, 채용인원 2.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7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20.0%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11.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9.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4.3%)',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0.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6.3%), 경영·행정·사무직(15.7%)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3.4%), 충남(33.1%), 인천(3.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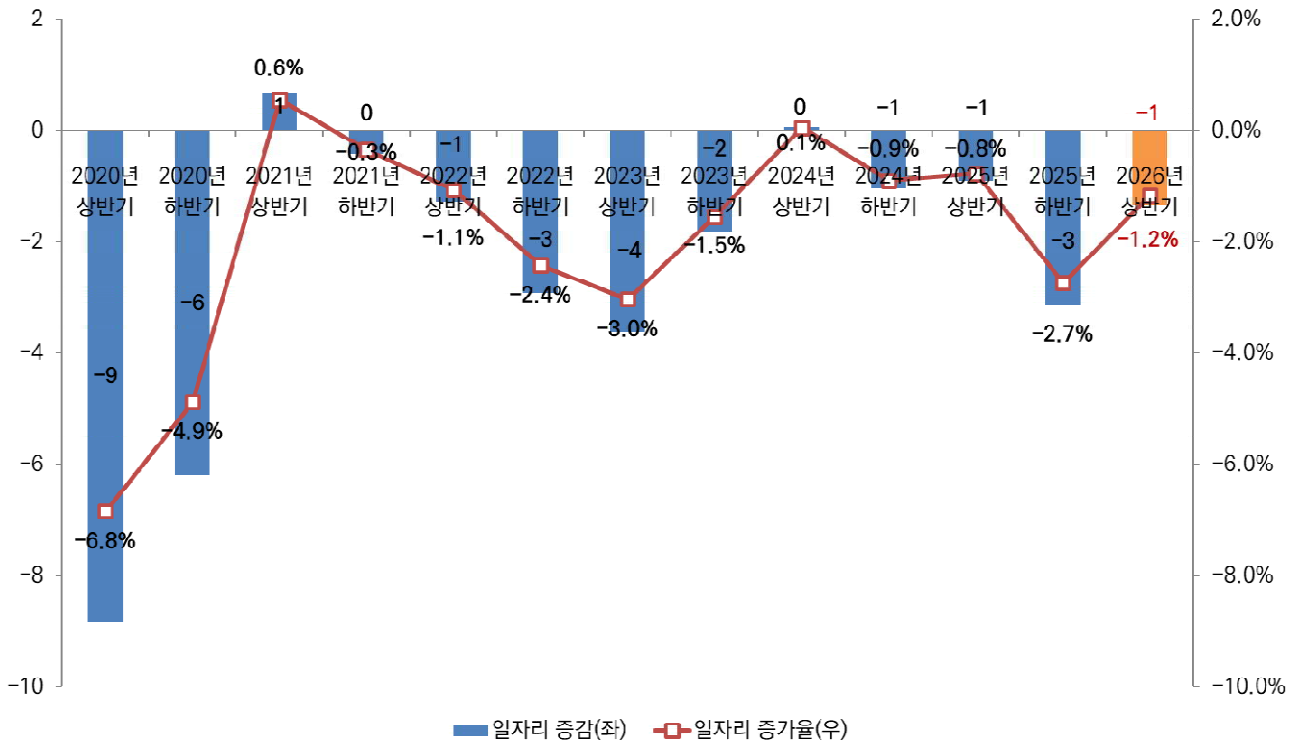
경기전망

- (시장전망) OLED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트 제품의 생산량 축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대중화에 따른 저전력(LTPO) 수요 확대, ▲프리미엄 IT OLED 패널 출하량 증가로 전반적인 시장 확대 예상
 - (스마트폰) 아이폰 폴더블('26.9월)·에어2 출시에 국내 패널사 기술 적용 등 기술 장벽 높은 제품(LTPO+) 확대에 의해 국내 업체 채택률 확대 기대
 - * 글로벌 스마트폰 LTPO 출하량(백만대, yoy) : ('24.上)119 → ('25.上)117 → ('26.上⁹)155(32.5%)
 - (IT) IT 제품 내 OLED 적용 확대(아이패드 미니 등) 및 대면적·高性能(주사율 등) 선호 증가로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세 전망
 - * 글로벌 IT용 OLED 출하량(천대, yoy) : ('24.上)10,954 → ('25.上)10,909 → ('26.上⁹)14,551(32.8%)
 - (TV) 고효율 가전 관심 증대에 따른 ▲선진국(미국, 유럽) 수요 증가 및 ▲세트기업의 OLED 라인업 확대 기조로 OLED TV 출하량은 증가
 - * 글로벌 TV용 OLED 출하량(천대, yoy) : ('24.上)3,062 → ('25.上)3,059 → ('26.上⁹)3,145(2.8%)
- (수출전망) AI 본격화 등 고부가가치(LTPO, 투스택텐덤 등) 수요 견조로 OLED는 전년比('25.上) 3.5% 증가한 59억 달러, LCD는 국내 기업의 체질 전환(LCD→OLED) 지속으로 전년比('25.上) 5.3% 하락한 18억 달러로, 전체 시장은 전년比('25.上) 1.3% 상승한 77억 달러 전망
 - (주력품목) 국내기업은 고부가가치 분야인 OLED 생산 확대에 의해 OLED 76%, LCD 24%의 수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상반기 전망)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고부가가치 채택 확대(폴더블, CoE 등), ▲프리미엄 IT OLED 제품 출시(맥북 등)로 OLED는 수출 증가, LCD는 2026년 국내 기업의 OLED로의 체질 개선으로 인해 수출 하락 전망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1.1	-2.4	-3.0	-1.5	0.1	-0.9	-0.8	-2.7	-1.2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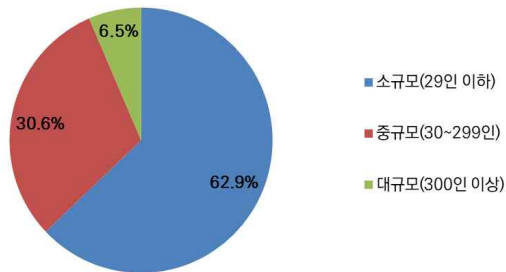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금속가공

금속가공업은 금속을 절단, 성형, 조립 및 가공하여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 및 난방용 보일러,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 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 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주로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종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33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2.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규모별로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62.9%의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30.6%,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6.5%가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7.6%), 경남 김해시(4.4%), 경기 시흥시(3.9%), 경기 안산시(3.8%), 부산 강서구(3.6%), 경기 김포시(3.4%), 인천 남동구(3.3%)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7%), 경영·행정·사무직(24.1%),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9.9%) 등으로 구성
- 금속가공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339천 명) 대비 1.3%, 4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7.5천 명, 채용인원 14.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0천 개
 - 금속가공 업종의 미충원율은 16.9%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1%p 낮게 나타났다으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8.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6%)'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1%)'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25.8%),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3%), 제조 단순직(19.3%)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0.4%), 경남(18.0%), 경북(8.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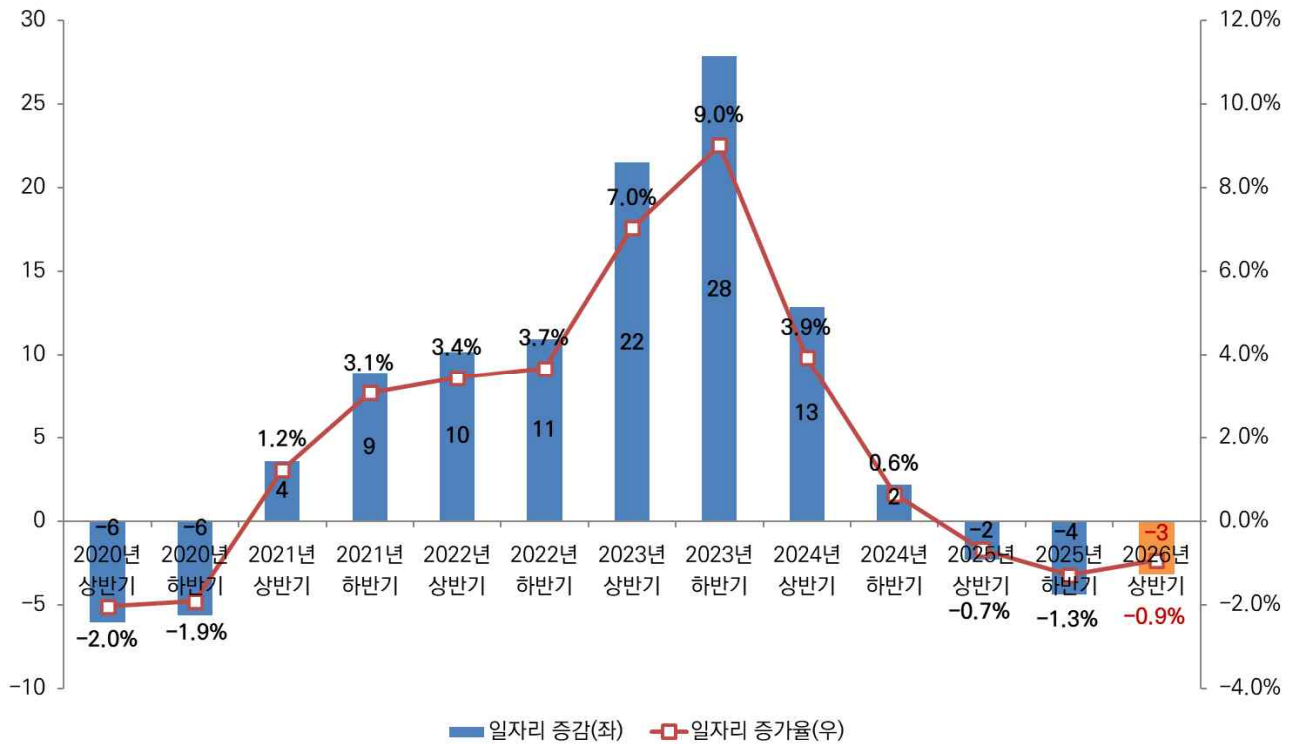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2026년 상반기 수출은 부진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26년 1월 금속가공산업 업황전망지수(SBHI)는 88.6으로, 2025년 12월(69.0) 대비 19.6p 상승하며 수출 여건에 대한 단기 개선 기대가 확대된 양상
 - 다만 동 지수는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와 주요 수출산업의 설비투자 조정 기조로, 수출 회복 체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내수) 2026년 상반기 내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 예상
 - 내수는 건설·기계·자동차 등 국내 설비 및 투자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며, 2026년 1월 업황 SBHI가 88.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여전히 위축된 상태이며, 상반기 내수는 경기 저점 통과 기대가 일부 반영되는 수준으로 전망
- (생산) 2026년 상반기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완화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2025년 11월 금속가공제품 출하는 전년동월 대비 -5.2%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실물 생산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이며, 업황 SBHI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생산은 보수적인 운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속가공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3.4	3.7	7.0	9.0	3.9	0.6	-0.7	-1.3	-0.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25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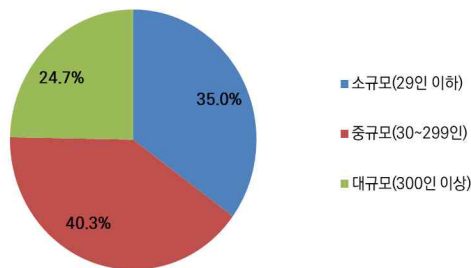
- 금속가공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9%(-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

석유·화학 업종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료를 화학적 변환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합성고무, 화학비료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석유 또는 천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합성원료로 다양한 유기 화학물을 제조하는 부문과 각종 무기화학물 및 유도체를 제조하는 부문 등으로 구성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5년 하반기 현재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48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678천 명)의 3.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 40.3%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에 35.0%,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 24.7%가 근무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7.3%), 서울 영등포구(3.1%), 경기 안산시(2.6%), 울산 남구(2.5%), 경기 시흥시(2.4%), 경기 김포시(2.3%), 전남 여수시(2.3%), 서울 종로구(2.3%) 등에 다수 위치
 - 산업별로 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50.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5.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3.9%)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32.9%), 경영·행정·사무직(23.9%), 제조 단순직(16.4%) 등으로 구성
-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4년 하반기(486천 명) 대비 0.1%, 0.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30~299인)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소규모(29인 이하) 사업체와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5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6.8천 명, 채용인원 14.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6천 개
 - 석유·화학 업종의 미충원율은 15.3%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8.4%)과 비교하면 6.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7.6%)',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11.9%)'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28.2%), 제조 단순직(25.3%), 경영·행정·사무직(17.0%)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6.9%), 경북(9.3%), 충남(9.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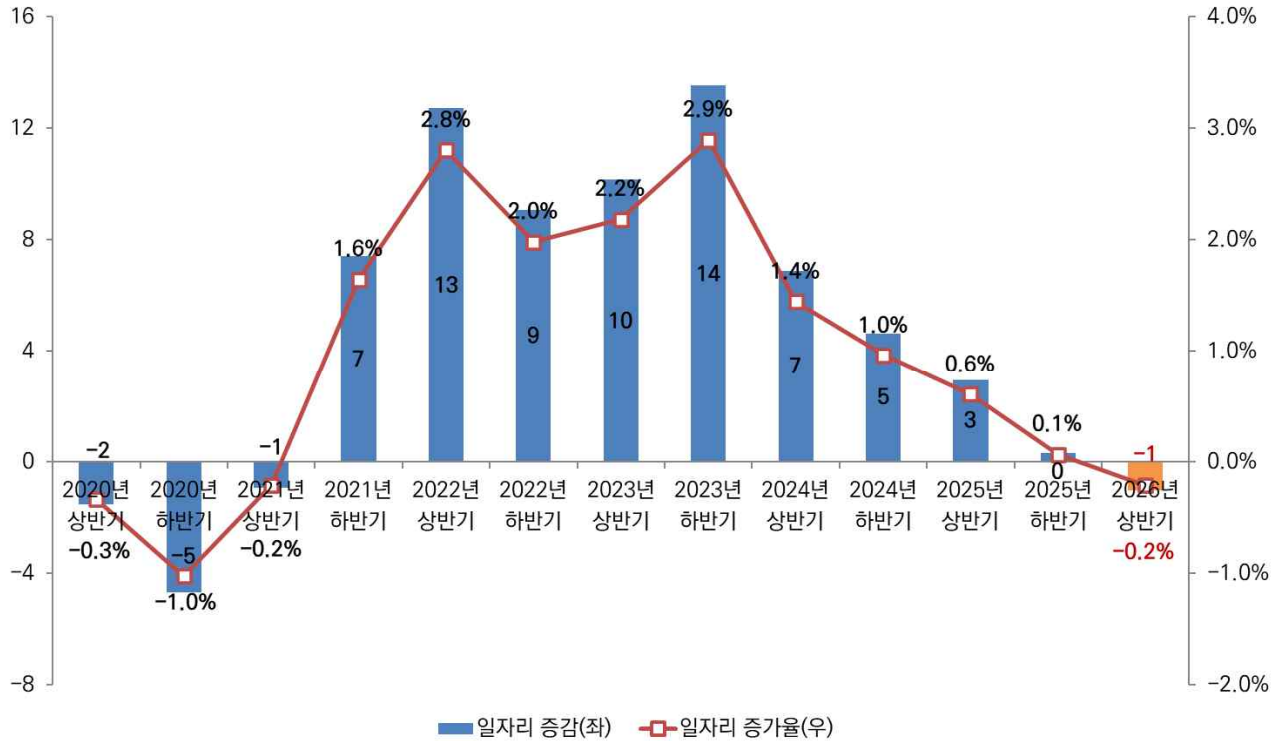
경기전망

- (종합)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고착화로 인한 업황 부진 장기화
 -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에틸렌 증설 물량의 누적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며 저성장 국면 지속 전망
- (생산) 수익성 방어를 위한 가동률 조정 및 생산 위축 전망
 -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가동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가동률 유지 및 생산 물량 감축 기조 지속
 -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에틸렌(2,800천 톤), 프로필렌(770천 톤) 등 대규모 기초유분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현 상태 지속 전망
- (수출) 시장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공급 과잉 완화로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저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일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지만, 인도·동남아·유럽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질적 성장 기대
 - 중국 노후화 설비 폐쇄 대비 신증설 Capa 증가로 對중국 수출 증가는 미미하나, 유럽 대규모 설비 폐쇄가 예상되어 對유럽 수출 기회 증가 전망
- (수입) 내수 회복과 함께 수입 증가 지속 전망. 특히, 중국산 위주의 범용 제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21년부터 한국의 최대 석유화학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대외 공급 여력 확대를 바탕으로 한국向 수출 지속 증가세 전망

2026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4하반기	'25상반기	'25하반기	'26상반기
2.8	2.0	2.2	2.9	1.4	1.0	0.6	0.1	-0.2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6년 상반기 석유·화학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업종 고용 규모는 2025년 상반기 대비 0.2%(-1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금속가공, 석유·화학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

<업종별 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기준>

업종	(분류코드)분류명
기계	(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2)유압 기기 제조업, (2913)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4)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5)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5)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20)철도장비 제조업, (31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조선	(3111)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2)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전자	(2622)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컴퓨터 제조업, (2632)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41)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60)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30)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40)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20)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0)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1)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조명장치 제조업, (2851)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2)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섬유	(1310)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21)직물 직조업, (1322)직물제품 제조업, (1330)편조 원단 제조업, (1340)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2)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9)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11)겉옷 제조업, (1412)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한복 제조업,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모피제품 제조업, (1430)편조의의복 제조업, (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50)화학섬유 제조업
철강	(2411)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2)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3)철강관 제조업, (2419)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철강 주조업, (2432)비철금속 주조업
반도체	(2611)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3011)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자동차 제조업, (30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1)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3)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39)자동차용 기타 부품 제조업, (3040)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디스플레이	(2621)표시장치 제조업, (2927)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금속가공	(251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3)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2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1)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2)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593)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4)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석유·화학	(1910)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1)원유 정제처리업, (1922)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1)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2)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41)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9)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11)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9)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